

# KBO '갭' 메이저리그·일본 '먹구름'

대만, 12일 세계 최초 개막...KBO 오늘 이사회

한국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30명 안팎 유지 '호전'

### 한미일 프로야구 기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멈춰선 전 세계 프로야구. 대만이 최초로 개막 광파르를 올린 가운데 한미일 프로야구의 향후 계획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만 프로야구는 지난 12일 타이베이 야구장에서 열린 중신 브라운스와 통이 라이온스의 경기를 시작으로 개막했다. 11일 개막전이 우천으로 연기되면서 이날 시즌 첫 경기가 열렸다.

코로나19 확산 통제가 대만이 프로야구 개막을 결정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대만은 12일 기준 확진자 388명, 사망자 6명으로 비교적 피해가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당분간은 무관중으로 경기를 열기로 했다.

한국도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 일주일 가까이 일일 확진자 숫자가 30명 안팎이다. 이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목표로 삼고 있는 5월초 개막도 불가능하지 않다.

KBO는 14일 이사회를 연다. 지난 7일 열린 실행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와 개학 시기 등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개막 여부를 정하겠다"는 KBO의 입장이 나왔다. 이를 토대로 유추해보면 이번 이사회에서 개막 일정을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

유리한 개막일은 5월1일(금) 또는 5월5일(화)이다. 3연전 체제로 시즌을 시작할 수 있는 날짜다. 개막을 한다면 일단 대만과 마찬가지로 무관중으로 시작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후 순차적으로 관중수를 늘려가겠다는 것이 KBO의 계획이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아직 프로야구 개막을 염두도 못 내는 실정이다. 미국은 일일 사망자가 2000명을 넘는 등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일본 또한 도쿄올림



픽 연기 결정 이후 확진자가 폭증했다. 양국 모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메이저리그는 6월 개막도 어렵다는 전망과 함께 162경기 체제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스프링캠프지인 애리조나주와 플로리다주에서만 이동을 최소화하며 정규시즌을 치르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7인칭 더블헤드' 등 각종 대안도 나왔다.

일본 프로야구 역시 마찬가지. 국가 비상사태가 5월초 해제되는 것을 고려하면 6월이나 개막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1월 열리는 일본시리즈를 돛구장에서 중립경기로 치르자는 제안도 등장했다.

KBO리그도 개막을 향한 희망을 키우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현재 KBO 매뉴얼 상으로는 단순 발열만으로도 선수단 전체가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있다. 이같은 상황이 개막 후에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잔뜩 흐렸던 하늘이 개고 있지만, 언제 다시 소나기가 내릴지 모른다. 물론, 아직까지 먹구름이 끼어있는 미국과 일본보다는 한국의 상황이 낫다.

## '통산 500도루,' 전준호·이종범

### 그리고 이대형에게만 허락된 대기록

'슈퍼소닉' 이대형의 통산 최다도루 도전이 멈췄다. 전준호 NC 다이노스 코치의 기록까지 한 걸음 가까워졌지만 끝내 다음 소속팀을 찾지 못하고 은퇴를 선택했다.

이대형은 505도루를 기록하고 그라운드를 떠난다. 이는 프로야구 역대 3위 기록. 1위는 전준호 코치의 549도루. 2위는 이종범 전 LG 트윈스 코치의 510도루다.

최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기록 전산화 작업 과정에서 전준호 코치의 도루 1개가 줄었다. 교체 출전한 선수의 도루가 전준호 코치의 도루로 기록됐던 것이다. 550도루였던 전준호 코치의 기록은 549도루로 수정됐다.

이대형에게는 목표 숫자가 하나 줄어든 셈이었다. 45도루만 추가하면 프로야구 역대 최다도



LG 유니폼을 입고 뛰 경기에서 나왔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53도루-63도루-64도루-66도루를 기록하며 도루왕 4연패를 달성했다. KBO리그 최초로 4년 연속 50도루, 3년 연속 60도루 기

이대형, 소속팀 찾지 못해 은퇴 선택... 최종 505도루

역대 1위 전준호 549도루·2위 이종범 510도루

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은퇴하며 이종범 코치의 기록도 넘지 못했다.

이대형의 505도루도 엄청난 기록이다. 38년 프로야구 역사상 500도루를 넘긴 선수는 전준호·이종범 코치와 이대형까지 3명뿐이다. 4위는 정수근의 474도루. 그 뒤로는 400도루를 넘긴 선수도 없다.

현역 중에는 KIA 타이거즈 김주찬의 388도루(역대 5위)가 최다 기록이다. LG 트윈스 정근우(364도루·역대 7위), 한화 이글스 이용규(346도루·역대 9위)가 현역 2위와 3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주찬, 정근우, 이용규도 30대 중후반의 나이임을 감안하면 500도루를 넘기기 쉽지 않다. 이제 막 30대에 접어든 박해민이 248도루를 기록 중이지만, 박해민에게도 500도루 가능성은 높지 않다. 리그 전체적으로 점차 도루의 중요성 인식과 시도 횟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형은 2003년 LG에서 데뷔해 2013년까지 팀의 간판으로 활약했다. 전성기를 LG에서 보낸만큼 505도루 중 379도루가

록을 세웠다.

2014년에는 고향팀 KIA와 FA 계약을 맺고 22도루를 기록했다. 2015년에는 2차 드래프트로 KT에 입단해 44도루-37도루-23도루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2017년 23번째 도루가 이대형의 필수를 멈춰세웠다. 8월 6일 수원 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전이였다. 2루 도루에 성공했지만 슬라이딩 후 베이스에 무릎이 꺾이면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이라는 부상으로 이어졌다.

이후 재활에 매달린 이대형은 2018년 마지막 복귀전을 치렀으나 지난해 19경기 출전에 그치며 시즌 후 KT에서 방출됐다. 2년 동안 도루를 추가하지 못한 이대형은 최종 505도루로 현역 생활을 마무리했다.

이대형의 은퇴는 한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알려졌다. 방출 후 새로운 소속팀을 구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전 소속팀들에 자신의 은퇴 결정을 알릴 상황은 아니었다. KT와 LG는 이대형의 은퇴 행사 개최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

## 린드블럼, 한국인 코로나19 대응 칭찬 "한국인 남을 배려"

매일 위키 지역 매체와 인터뷰...지난해까지 KBO리그 두산 베어스서 활약



조쉬 린드블럼(33·밀워키 브루어스)가 지난해와는 면모를 드러냈다.

미국 밀워키 지역 매체 '밀워키 저널 센티넬'은 13일(한국시간) 린드블럼의 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과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비교했다.

린드블럼은 인터뷰에서 "한국인들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을 배

려한다"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한국인들의 특징을 말했다.

이어 "미국인들은 일이 벌어진 뒤에 대책을 준비하고, 마스크 역시 자신이 감염되지 않으려 쓴다"며 "그것이 바로 문화의 차이"라고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비교했다.

린드블럼은 지난해까지 KBO리그에서 활약했던 선수다. 2015년

롯데 자이언츠에 입단하며 처음 KBO리그에 발을 내디뎠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두산 베어스에서 뛰었다. 지난해 20승을 거두며 정규시즌 MVP를 차지하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한국은 인접국인 중국에서 감염병이 발생한 초기에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현재는 상황이 많이 진정됐다. 반면 미국은 최근 몇 주 사이에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

이같은 차이는 프로야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KBO리그는 5월초 개막을 목표로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반면, 미국 메이저리그는 아직 개막할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린드블럼은 "우리는 팬들을 위해 경기를 한다. 관중없는 야구장은 상상할 수 없다"며 무관중 경기에 거부감을 드러낸 뒤 "프로 선수로서 팬들에게 희망을 전해야 한다"고 책임감을 강조했다.

### 日축구 매체, 손흥민 세계

랭킹 45위 평가... "압축고"

일본 축구 전문 매체가 손흥민(28·토트넘)을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로 치켜세웠다.

일본 풋볼 채널은 13일(한국시간) '2019-20시즌 세계 축구 선수들의 능력치 랭킹'에서 손흥민을 45위에 올렸다.

풋볼 채널은 "손흥민은 아시아 최고의 공격수"라며 "바이에른 뮌헨, 유벤투스와 같은 팀에서 관심을 보이는 선수"라고 평가했다.

나아가 "손흥민은 날카로운 드리블 돌파와 양발로 강력한 슈팅을 날려 상대를 위협한다"며 "해리 케인과 함께 토트넘 공격의 축이며 팀에 중요한 존재"라고 덧붙였다.

매체는 손흥민의 최고 강점을 드리블과 스피드로 꼽으며 지난해 12월8일 번리와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경기에서 나온 골을 조명했다. 당시 손흥민은 70여m를 단독 돌파해 골을 터트렸는데 매체는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단 손흥민의 약점도 있다. 손흥민이 지난해 레드카드를 3번이나 받은 부진을 언급하며 멘탈을 지적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20.4.15.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 투표로 시작됩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투표** 4월 15일(수)

**사전투표** 4월 10일(금) ~ 11일(토)

**투표 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 선거권 연령 : 18세(2002.4.16. 이전 출생자) 이상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 모두 함께 지켜요!

신분증 준비하기

마스크 착용하고 (사전투표소 가기)

발열체크 받고 손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다른 선거인과 1m 이상 거리두기